

문화

2012 문화계 결산

② 공연



광주문화재단이 주최한 '페스티벌 오! 광주' 참가작이었던 국립발레단의 '백조의 호수' 공연은 올해 많은 화제를 모았던 작품이었다.

'광주색' 살린 작품들 꾸준히 무대에

올해 광주 공연계는 활기찼다. 광주세계아리랑축제 등 새롭게 시작하는 행사도 많았고, 전국무용제 대통령상 수상 등 낭보도 이어졌다.

성도를 놓고 반응이 엇갈렸다. 혹평을 받았던 '자스민 광주'에 비하면 다소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지만 '광주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내놓기에는 아직 미흡하다는 게 대체적 의견이다.

많은 작품들이 눈에 띄었다. 푸른연극마을의 '안티고네', 아트컴퍼니 원의 무용극 '용아' 등이 대표적이었다. 그밖에 김원중 달거리 공연, 한소리회 음악회, 200회를 넘긴 박윤모 모노드라마 '아버지', 광주를 소재로 한 뮤지컬 '화려한 휴가' 등은 광주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올해도 꾸준히 무대에 올려졌고 창단 30년을

임지형&광주현대무용단의 전국무용제 대통령상·안무상·연기상 수상은 지역문화계에 전해진 낭보였다. 광주현대무용단은 '자메뷰'로 지난 2003년, 2005년에 이어 세 번째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광주에 동지를 틀고 첫 음악회를 진행한 피아니스트 한동일씨의 행보와 민간 교향악단인 광주내셔널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출범, 제1회 광주독립영화제 등 지역문화계를 풍성하게 한 일들도 눈에 띈다.

▲아리랑축제·전국연극제 등 대규모 행사
올해 첫 선을 보인 광주세계아리랑축제는 당초 '선정 효과'를 노리고 출발했던 터라 큰 성과를 보이지는 못한 채 막을 내렸다. 다만 준비기간이 짧았던 점을 감안하면 차기 행사를 치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그밖에 올해 세번째 행사를 치른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의 경우 무엇보다 조율을 안정화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16년만에 다시 열린 전국연극제

▲시립예술단 운영 수준 이하
광주문예회관의 광주시립예술단 운영은 낙제점이었다. 소년소녀합창단이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하고, 무용단이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 공연하는 등 외부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기도 했지만 지난 5월 시립합창단 지휘자 선임 반복하는 일이 발생, 신뢰감을 떨어뜨렸다.

▲시립예술단 운영 수준 이하
광주문예회관의 광주시립예술단 운영은 낙제점이었다. 소년소녀합창단이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하고, 무용단이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 공연하는 등 외부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기도 했지만 지난 5월 시립합창단 지휘자 선임 반복하는 일이 발생, 신뢰감을 떨어뜨렸다.

하지만 국내에서 벌어지는 다른 아리랑축제와 차별화를 강조했던 주제 공연의 경우 완성도 면에서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9억원의 예산 중 3억7000만원을 사용한 주제공연 '빛고을 아리랑'은 전형적 구성과 진부한 전개로 기대치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연극계에는 또 하나의 경사가 있었다. 해체된지 24년만에 재창단된 광주시립극단의 존재. 극단은 박윤모 예술감독을 중심으로 상임연출 등 5명으로 진용이 꾸려졌다. 하지만 창단 기념작으로 무대에 올린 '세익스피어 인 광주'는 의욕만 앞섰지 완성도 면에서 연극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 아쉬움을 줬다.

특히 연초부터 광주시립교향악단의 정기공정을 둘러싼 범정다툼이 진행된 데 이어 최근에는 승소 판결을 받은 단원들이 현 루트비히 상임지휘자의 '연임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등 불협화음이 이어지고 있다. 단원들이 지난 21~22일 올해 마지막 공연에서 시민들에게 드리는 글을 배포하고 리본을 달고 연주를 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서 사태가 어떻게 해결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연초부터 광주시립교향악단의 정기공정을 둘러싼 범정다툼이 진행된 데 이어 최근에는 승소 판결을 받은 단원들이 현 루트비히 상임지휘자의 '연임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등 불협화음이 이어지고 있다. 단원들이 지난 21~22일 올해 마지막 공연에서 시민들에게 드리는 글을 배포하고 리본을 달고 연주를 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서 사태가 어떻게 해결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2월 '아리랑'이 유네스코가 선정한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면서 향후 정부의 지원책이 강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부터 체계적인 준비를 서둘러 완성도 높은 행사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으로 올해 대륙 예선이 확대된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 사업은 긍정적 효과가

맞은 놀이패 신명의 행보도 인상적이었다. 의미있는 공간들도 눈길을 끌었다. 올해 문을 연지 30년이 된 클래식음악감상실 배토벤에서는 감사음악회가 열렸고, 임의진·한희원씨 등이 주축이 돼 새롭게 문을 연 문화공간 '메이홀'에서는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렸다.

무등산 자락에 문을 연 전문문화관 역시 매우 다양한 국악공연을 진행하며 시민들에게 인지도를 높였다. 또 클래식음악 감상실 '다락'이 하우스 콘서트와 클래식 강좌를 진행하며 자리를 잡았고, 호남신학대학교가 김승일 교수와 함께 진행한 '풍당클래식' 역시 클래식 저변화에 기여했다.

광주문화재단이 지난해 '자스민 광주'에 이어 두번째로 제작한 브랜드 공연 '남을 위한 행진곡'은 완

성도를 놓고 반응이 엇갈렸다. 혹평을 받았던 '자스민 광주'에 비하면 다소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지만 '광주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내놓기에는 아직 미흡하다는 게 대체적 의견이다.

그밖에 올해 세번째 행사를 치른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의 경우 무엇보다 조율을 안정화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16년만에 다시 열린 전국연극제

특히 연초부터 광주시립교향악단의 정기공정을 둘러싼 범정다툼이 진행된 데 이어 최근에는 승소 판결을 받은 단원들이 현 루트비히 상임지휘자의 '연임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등 불협화음이 이어지고 있다. 단원들이 지난 21~22일 올해 마지막 공연에서 시민들에게 드리는 글을 배포하고 리본을 달고 연주를 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서 사태가 어떻게 해결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예술적 상상력, 미디어아트로 꽃피우다

이이남 '굿나잇 아날로그, 굿모닝 디지털' 전 28일부터 시립미술관

어느새 훌쩍 커버렸다. 광주시립미술관이 내놓은 '마르셀 뒤샹과 백남준의 계보를 잇는'이라는 파격적인 홍보 문구를 제외하더라도 관람객 앞에 선보이는 작품들이 신선하다. '기술적 예술'이라는 미디어아트에 덧입힌 예술적 상상력이 돋보이는 작품들로 가득하다.



'침묵'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씨가 28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에서 선보이는 '굿나잇 아날로그, 굿모닝 디지털' 전 이야기. 우선, 전시 기획이 절묘하다. 2013년 1월 1일 새벽 4시를 기해 종료되는 아날로그 방송과 새롭게 디지털 방송이 시작되는 역사적 순간을 미디어 아티스트가 그냥 넘길 수 없다는 취지다.

이어받아 새로운 디지털 시대의 미래를 제시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내비쳤다.

영산강을 소재로 해 지역 작가의 정체성을 드러낸 점도 눈길을 끈다. '침묵' 등 작품은 영화 26편을 본 뒤 떠오르는 이미지를 영상으로 담아냈다.

'비디오 아트'의 기원으로 평가되는 지난 1963년 3월 독일 부퍼탈의 파르나스 회관에서 열린 백남준의 첫 개인전 '음악의 전시-전자 텔레비전' (Exposition of Music-Electronic TV) 이후 50년이라는 의미도 담았다.

지난 2010년 이후 광주에서 3년 만에 선보이는 개인전으로, 5개 전시실을 채우는 30점 작품 중 25점을 신작으로 채우는 등 공을 들였다.

차량 문을 만들고 유리창에 영상을 내보내며 광주의 지난 아픈 시간을 위로하는 메시지를 담은 '엄마 카도어와 아기 카도어', 뒤샹의 소변기는 '샘'과 구형 아날로그 TV를 매치시켜 놓은 '뒤샹 VS 백남준', TV 속 화면조정 표시를 포스트잇처럼 뜯어내는 '전자 포스트잇' 등 기발함이 넘치는 작품도 적지 않다. 문의 062-613-7150. /김지은기자 dok2000@

당시 13대의 고물 텔레비전 회상을 자식으로 조종하는 등 비디오아트의 원초적 형태를 제시한 백남준이 추구했던 상호 작용, 참여 등 핵심 가치를

'사물이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는' 자동차 사이드 미러를 소재로 해 광주의 역사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작품 '광주여 안녕'을 선보이려는 하던 오래된 가구 위에 모니터를 설치하고 화면에 영산강 발원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한 '고가구 폭포' 작품 등 광주와

만 한 기존의 동화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때로는 동화라고 하기에는 너무 잔혹하고 노골적인 성 묘사가 나오기도 하지만 상징과 은유가 응축된 환상적인 작품 세계는 어린이뿐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읽고 즐길 수 있는 문화의 원형으로 평가받는다. 그림 동화 초판본 1, 2권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남도국악원 안무자 모집

국립남도국악원(원장 윤이근)이 무용단 안무자(여성)를 모집한다.

이번 전형은 1차 서류전형을 걸친 합격자에 한해 2차 실기 및 면접 전형으로 선발하게 되며 합격자는 연주단의 공연, 연습 등에서 단원을 지휘·감독할 보직단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상세한 내용은 국립남도국악원 홈페이지(www.namdo.go.kr)나 국립남도국악원 장악과(0615404031)로 문의하면 된다. 원서접수는 24~27일까지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2013년 1월 9일 공고된다. 최종합격자 2013년 1월 16일 개별 통보된다. /김미은기자 mekim@

'그림동화' 한국어 완역판 출간

발간 200주년 기념



'성경' 다음으로 전 세계에 가장 많이 알려진 책으로 꼽히는 '그림 동화'의 한국어판 완역판이 나왔다.

목부터 흥미를 자아낸다.

그림 형제의 동화는 단순히 동화 그 이상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 그림 형제의 동화는 아름답기

원제명은 '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이야기다. '백설 공주' '빨간 모자' '현젤과 그레텔' '재투성이 아네푸델' '신데렐라' '원본 이야기' '개구리 왕자' 등 우리에게 친숙한 작품은 물론 '취가죽 공주' '기다란 코' '팔콘이' 등 최종 판에 실리지 않은 이야기들도 제

만 한 기존의 동화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때로는 동화라고 하기에는 너무 잔혹하고 노골적인 성 묘사가 나오기도 하지만 상징과 은유가 응축된 환상적인 작품 세계는 어린이뿐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읽고 즐길 수 있는 문화의 원형으로 평가받는다. 그림 동화 초판본 1, 2권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ShinYang Park Hotel Special 신양고객감사 특별 상설 뷔페. 2012.12.24~12.25/12.31/새해 1.1 장소 호텔 1층, 스카이라운지. 성인 ₩30,000, 아동 ₩20,000. 신양스페셜 서비스: 점심 와인 한잔, 저녁 미니케익 제공.

보약, 흥삼은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흥삼 100% 60포 → 15만원(주문판매). 흥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90,000원.